

국내 친환경 축산물의 이해와 발전방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성 어필 -



이 연 섭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안전성관리팀 농업사무관

1. 친환경 축산이란

친환경축산을 몇 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조방적 사육관리를 유도하고 경종농업과 상호순환관계를 맺고 있어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라는 것이다. 둘째, 가축에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가축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므로써 농약 및 항생제와 같이 유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HACCP 지정을 받은 도축 및 가공장에서 처리되어 소

비단계까지 안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축산에서 가축은 인간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써 존중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보다 많은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가축에게 사료·약제를 무한정 투여하는 공장형 축산이 지양되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축산 경영마인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넷째, 우리 축산물의 관리수준을 Upgrade하는 축산물 관리방법(Tool)을 제공함으로써, DDA나 FTA체결로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



주에서도 신선한 상태로 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 축산물과 무한경쟁이 시작된다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축산은 이러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관련 부분으로, 2003~2005년(3개년) 동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유기축산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유기양계의 경제성을 보면, 일반산란계 사양농가는 연도에 따라 난가의 변동이 심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유기산란계 사양농가는 계란 판매단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내 친환경축산의 도입배경 및 현황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욕구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안전·위생 축산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웰빙 붐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유기축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01년 7월 제24차 WTO와 FAO산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유기가축분야에 대한 일반원칙과 사육·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

라 국내에서 유기축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0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기축산물 및 전환기 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03~'05년동안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07년 10월 현재 51건이 인증되었으나,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유기축산물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기축산 여건은 초보단계로 중국과 호주와 같이 광활한 국토에서 대단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비교하여 유기사료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유기축산물의 생산단가 절감이 어렵고, 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통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유기축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 또한 제한적이어서 유기축산물의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할 수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지난 3.28일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축산농가의 진입 완화와 농가 생산비 절감,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일정수준 이상의 친환경축산물 공급물량을 확대를 통한 소비의 저변확대에 커다란 의미를 갖을 수 있다.

무항생제축산물이 도입된지 6개월이 경과된 현재 인증건수는 227건(377농가)으로 그

표1. 축종별 친환경 인증 건수

구분	계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산양	오리	사슴
유기축산	51	10	5	4	21	8	3	-	-
무항생제 축산	227	25	1	16	136	43	2	3	1
계	278	35	6	20	157	51	5	3	1

중 산란계 인증건수가 69%(157건)로 산란계 농가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류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가속화 되는 이유는 첫째, 친환경축산에 진입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료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사육주기가 타 축종에 비해 짧고, 부화장에서 농가로 입식 시 전환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품질인증농가에서 품질인증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계획을 인지하고, 친환경축산물로 진입을 서두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넷째, 인증기준 요건 중 사육형태를 평가기준에서 케이지 사육까지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축산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친환경 축산의 어려운 현실과 해결해야 될 과제

1) 유기사료 및 무항생제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기축산물의 인증을 위한 구비요건은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유기사료의 확보는 유기축산물 인증 및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국,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은 넓은 경작지에 서의 대단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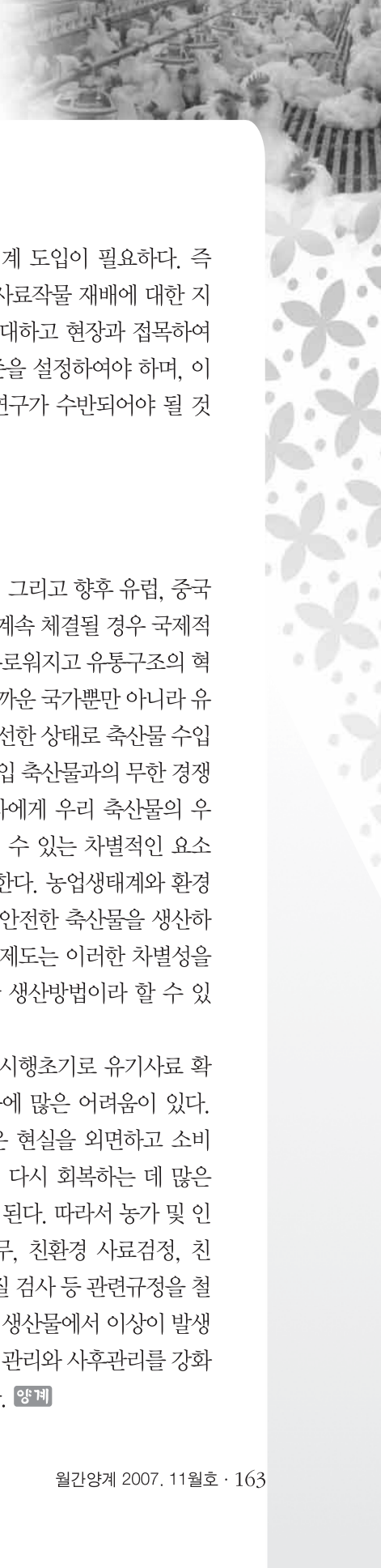


비교할 때, 대부분의 유기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유기사료의 공급문제는 유기축산물 생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된다.

이러한 유기사료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사료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하여 유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유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산야초 등을 이용하던가 유기농산물 담리작으로 추파 사료작물을 유기재배 하는 방안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 유기비료를 공급하고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같은 경종농가는 축산농가에 유기농산물 부산물을 유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체계적으로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 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서 무항생제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무항생제사료”



라 함은 사료에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조건은 유기사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쉬운 반면, '07년 3월 신설된 제도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유기배합사료 성분등록과 같은 규정이 없어 무항생제 배합사료를 심사하는데 있어 항생물질 등의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향후, 무항생제배합사료 성분등록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위한 심사를 더욱 간소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비용 절감 및 무항생제 배합사료의 원활한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친환경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은 친환경성, 안전성을 극대화 시킨 축산물 생산방법이긴 하지만, 높은 생산비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유기적 재배방법으로 옥수수를 생산할 경우 약 40~50%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 사료비가 일반 축산에 비해 약 2배 수준이고, 축사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제한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등 생산비가 일반축산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축산물 생산비 상승은 추후 생산물 판매가격을 높게 수취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또한 100% 보장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산물 생산

비를 감축하는 생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즉 유기 축산물 및 유기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확대하고 현장과 접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최근 한미 FTA체결, 그리고 향후 유럽, 중국 등 제3국과의 FTA가 계속 체결될 경우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신선한 상태로 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 축산물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친환경축산을 시행초기로 유기사료 확보, 사양관리, 유통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농가 및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업무, 친환경 사료검정, 친환경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생산물에서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육단계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